

기도 편지 50

(대하 20:12, 13) 우리 하나님이며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그분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다낭 SC 병원 개척에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진전이 느려 죄송한 마음만 가득합니다. 계속 손모아 주시길 간청합니다.

1. 다낭 SC 병원 : 외국인 기업이 자국 기업의 의료용 예비지를 재임대해서 장기 사용하는 문제에 대한 정부 부서간 의견을 모두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군데 이상 부서들의 의견들은 모두 호의적인 의견을 보내 주었다고 듣고 있습니다만, 국유지 불하와 관련된 비리 사건 조사들로 인해 공무원들이 결재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어 진도가 참 느립니다. 곧 정식 절차들이 마무리 되기만 손 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많은 공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만 아직 본격화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2. 통안 세계로 병원: 최근 언청이 수술 사역중 3살 응웬민터(Nguyen Minh Thu)가 저산소증으로 뇌에 지장을 받아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이 되지 못한 상태로 재활 치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여년간 성형 사역 280여 건수를 진행하는 동안 한번도 없던 일이 발생하여 모두 마음을 태우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이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손모아 주십시오. 이런 일들 통하여 다시 한번 첫 마음들을 다지는 일에 대해 질문해 오심을 생각해 봅니다. 잘 회복되어서 영광 돌리고, 저희도 이 영혼들을 매일 매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3번째 개척 처소 장소를 고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여러 군데를 살펴 보았는데, 최종적으로 미한박(My Hanh Bac) 지역의 한곳을 택하고 개척 사역자 푸(Phuong) 전도사님과 함께 토지 주택 소유 관련 서류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차로 10분이면 접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곳은 이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독 기숙사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행정적으로 연결된 모교회는 흐우응이아(Huu Nghia, 담임 린(Linh) 목사) 교회입니다. 목사님 부부가 특별히 노동 청년들을 잘 섬겨 부임시 60여명 성도가 5년 지난 지금에 500여명 성도로 성장한 교회입니다. 모든 일들 순적하도록 손모아 주십시오.



(제3 처소 : 미한박 처소 모습)

1교회 득화(Duc Hoa) 교회는 담임 안(An)목사님과 전 교회가 전도하는 일에 참으로 열심입니다. 최근 성탄 찬양 전도 집회에서도 약 30명 가까운 새 성도들이 영접을 하였습니다.



(득화 교회 성탄 음악 전도 집회 광경)

(새신자 영접 장면)

현재 주일 회집 인원은 80명 정도이며 교육관과 사택을 건축하였습니다. 지역의 중심 교회로 더욱 발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협력 사역인 성경 보급 사역은 병원 접수처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본당과 신축한 교육관)

(베트남 성경 뒤에 이 교회의 연락처를 붙여 병원에서 보급함)

2교회 쉐언트이(Xuan Thoi) 교회는 주일 평균 30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고 있지만 성장 속도가 느립니다. 행정적으로 연결된 시내 모교회인 댄빈(Tan Binh) 교회의 사역자들이 주말에만 돌보고 있어 한계가 있습니다. 돌파구가 마련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중부 지방 발전 계획들 : 초음파를 주제로 하는 롱안 세계로 병원의 브랜치 클리닉을 중부 산간 지방 소수 부족 교회들의 의료 사회 봉사실로서 설립하는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끈뚨 (Kon Tum)출신 예(yeh)족속 기독교 의사 한 사람 (Dr. A, Khanh)을 롱안 세계로 병원에서 근무하게 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기들도 교육을 받게 하고자 합니다. 또한 라오스 나가는 길목인 광찌(Quang Tri)성 동하(Dong Ha)시에 롱안 세계로 병원의 대리점 사무실을 신설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연락 사무소와 근거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3. 베트남 교회와 함께하는 사역들 :

베트남 기독교 전도 총회(Vietnam Christian Mission)의 본부와 미션 센터 건축건을 계속 돕고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초 파일링을 모두 마쳤고, 골조 공사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직 재정이 많이 부족해서 계속 기도하며 대 내, 외적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중부 지방의 대

표적인 기독교 거점으로서 자리 잡을 기회가 잘 활용되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낭 권역 몇군데 교회를 섬기는 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소수부족 청년 기술 교육 센터와 농아를 섬기는 일을 진행하는 교회, 나환자들을 보살피는 교회, 미혼모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그 필요들에 따라 돕고자 여러 형편들을 살피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나환자촌 교회에 직접 가구들을 제작하시는 팀(진주 강변)이 와서 함께 목공일들을 하며 교회 가구들을 직접 만들어주는 일이 있어서 전도 잔치를 준비중인 교회에 귀한 성탄 선물이 되었습니다.



(나환자촌의 화번 교회의 성탄 준비)

중부권 산악 교회들을 돕는 일은 의료 진료와 약품 보급, 교회 공용 우물파기, 성도 가정 화장실 만들기등의 사업들을 진행중입니다.

4. 사회 사업 분야 : 과거 한국군 연관 지역인 광남성 디엔반(Quang Nam, Dien Ban)을 섬기는 일들로 의료 봉사, 고엽제 가정 방문, 사랑의 집짓기를 계속 누적해 가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짓기는 현재 30호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엽제 가정들을 방문하고 위로하는 일은 장차 다낭 SC 병원이 가동되면 재택 재활팀을 각 가정에 보내서 돌보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역의 기초로서 자료들을 누적해 가고 있는 일이라 중요합니다.

의료 봉사 사역지의 확대를 위해 중부 지방의 광남외 다른 도청 단위들에 의견들을 보내고 한군데 트아티엔후에(THua Thien Hue) 지역이 연결되어 처음으로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꺼뚜 족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베트남 표준말이 익숙지 않아 중간에 통역자를 두어야 합니다. 앞으로 관계가 잘 성숙되어 가서 더 구체적인 연결과 복음 접근의 통로들 열리기를 바라고 진행하고자 합니다.



(트아티엔 후에성 남동현의 꺼뚜족 사람들)

5. 가정 : 통안과 다낭을 오가며 일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이 잘 유지되면 좋겠습니다. 다낭 병원 설립의 과정이 느려짐에 따라, 많은 일들이 정체되어 있는 느낌입니다만, 그런 중에도 현지 교단, 교회들과 함께 지내며 여러 사역들을 하게 하심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부권 관문 도시 사역의 교두보들을 두고 고민하며 우선 팽씨성 동하에 지점을 둘 수 있는 절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하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들은 학위를 취득하고 같은 교실에서 포스터 닥터의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딸은 낯선 곳이지만, 지반 공학의 석사 과정을 공부하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위의 말씀, 여호사밧의 심령으로 저희는 지금 그 분 앞에 서서 오로지 주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낭 병원 일을 풀어 주시도록 같이 손모아 주십시오. 곧 시원한 소식을 드릴 수 있기만을 소망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

1. 다낭 SC 병원의 모든 일들에 순적함을 주시옵소서, 다낭시 행정 부서들이 이 병원 설립에 호감을 가지고 진행을 순적히 도와줄 수 있도록
2. 통안 세계로 병원의 3번째 개척 교회안과 중부 산간 지방들 거점, 초음파 클리닉 설립의 발전 계획들에 인도함을 주시옵소서
3. 베트남 중부 지방의 함께하는 여러 교회들과 VCM 총회의 발전을 통하여 이 곳에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소서, 특별히 소수부족 청년, 농아, 미혼모, 나환자 돌보기들을 행하는 각 교회들에게 평안한 사역길을 허락하소서,
4. 아들 연덕의 포스터 닥터의 길을 인도하시도록, 약 2년간 모교 서울대에서 조교로 일할 동안 주변에 선한 복음의 영향을 끼칠수 있도록, 좋은 배필을 만날 수 있도록 하소서
5. 딸 연경의 석사 과정을 지켜 주시고, 이국 땅에서의 생활이 즐거운 시간들이 되도록, 신앙이 잘 자라도록 하소서
6. 부부가 건강하여 다시금 개척 사역자로서의 시간들을 충실히 보낼 수 있도록

2019. 12. 20 우석정/이희정/연덕/연경 드림